

강기정 시장 “더 단단한 민주주의, 실천으로 보답하겠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6·10민주항쟁 기념일을 맞아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한 이들의 뜻을 기렸다.

강 시장은 10일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열린 ‘제38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 및 민주화운동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강 시장은 이날 기념식 참석에 앞서 민주화운동기념관 전시관을 둘러보고 1987년 고문으로 사망한 박종철 열사 등 민주주의에 목숨을 걸고 희생한 이들을 추모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6·10민주항쟁은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의 맥을 잇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원칙을 확인시켰다”며 “대한민국에 군사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대통령 직선제라는 획기적인 역사적 전환을 이뤄낸 어마어마한 일이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어 “우리는 박종철·이한열 열사 등 수많은 민주열사들이 흘린 피 위에서 민주주의 수호를 향해 다시 나아가고 있다”며 “더 단단한 민주주의가 일상에서 더 깊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실천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제38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은 ‘다시, 민주주의’를 주제로 열렸다. 우리가 살아가는 민주주의를 성찰하고 더 나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다짐을 담았다. 특히 2021년부터 3년여간 공사와 1년의

서울 민주화운동기념관서… 민주주의 헌신한 민주열사 뜻 되새겨

27일 오후 6시 광주 금남로공원에서 ‘6·10민주항쟁 기념문화제’ 개최



준비 끝에 문을 연 민주화운동기념관 개관식도 함께 개최돼 의미를 더했다.

민주화운동기념관이 문을 연 ‘남영동 대공분실’은 군사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무고한 시민들을 연행해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던 인권 유린의 현장으로, 국가폭력의 상징이다. 1985년 김근태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에 대한 고문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그 실체가 드러났다. 1987년 1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촉

소·은폐하려 했던 사실이 알려지며 6·10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됐다.

한편, 광주에서는 오는 27일 오후 6시 동구 금남로공원에서 ‘제38주년 6·10민주항쟁 기념 문화제’가 열린다. /박도일 기자

광주 남구, ‘여름·겨울용 에너지 바우처’ 일괄 지급 취약계층 6,348가구 지원, 9일부터 접수 시작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무더위 시작에 따른 에너지 취약계층 주민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고, 다가오는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 관내 6,348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10일 남구에 따르면 에너지 바우처 신청 접수가 지난 9일부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다.

신청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가운데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노인 이거나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소년소녀 가정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최근에 세대 주소가 변경됐거나 세대원이 바뀌었으면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기존과 동일한 세대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에너지 바우처는 올해부터 하절기

용 바우처와 동절기용 바우처 구분없이 한꺼번에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사용상 주의가 필요하다. 각 세대에서 계절별 적절 사용량을 안내하지 않으면 바우처가 조기에 바닥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일례로 하절기 바우처는 지난해 세대원 수에 따라 5만5,700원~11만7,000원을, 동절기의 경우에는 25만4,500원~59만9,300원을 지원했다.

올해에는 이러한 구분없이 한꺼번에 29만5,200원에서 70만1,300원을 지급한다.

남구 관계자는 “하절기와 동절기 지원 금액이 통합됨에 따라 동절기를 고려해 바우처의 적절한 사용이 필요하다”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단소 중립과로 문의해 달라”고 밝혔다.

/임채일 기자

북구, 취약계층 건강한 여름나기 지원

폭염 취약계층 1,741세대 대상 냉방용품 및 식료품 키트 지원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다가오는 폭서기에 대비하여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 나기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북구와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협력하여 폭염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중위소득 100%이하)에게 냉방용품과 식료품 키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북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업을 수행하며 사업비는 총 1억 8백여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총 1,741세대로 이 중 1,041세대에게는 ▲선풍기 ▲여름 이불 ▲양산 ▲보냉병 등의 여름나기 용품을 지원하고 나머지 700세대에는 삼계탕 밀키트 등 간식 10종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 물품은 27개 동별 저소득세대수를 기준으로 배정되었으며 10일과 12일 이들 동안 동으로 물품을 배부한 뒤 이달 중 동에서 직접 취약 계층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연말연시에 집중된 성금 모금을 여름철에도 활성화하여 나눔문화를 확대

하기 위한 ‘희망여름 착!착!착! 나눔캠페인’도 추진한다. 해당 캠페인은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33일간 진행되며 캠페인 기간 중 모금된 성금은 복달임 행사, 추석 명절 물품 지원, 사회복지시설 복지사업 지원 등 지역 내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북구는 성공적인 캠페인 추진을 위해 10일 오전 11시 북구청 광장에서 문인 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북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구 나눔캠페인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모금 활동에 나선다.

문인 북구청장은 “해가 갈수록 여름철 더위가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주민들의 건강한 여름나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여름에도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주민들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송현근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위험 상황이 발견되면 안전신문고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여름철 집중신고’는 호우·태풍, 산사태 위험, 폭염, 물놀이 안전 등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자연재난과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된다.

호우·태풍 관련 위험 사항 유형에는 ▲빗물받이 막힘 ▲옹벽 붕괴·포트를 등 시설 파손 ▲강풍 위험 ▲감전사고 대비 전 기시설 위험 등이 있다.

산사태 관련 위험 사항 유형에는 호우로 인한 ▲비탈면 등 토사 유출 ▲낙석 위

광주시, “여름철 위험요소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세요”

6~8월 집중신고 기간 운영… 호우·태풍·폭염사고 등 사전예방

협 ▲주책가 등 주변 절개지 위험 ▲위험 구역 관리 미흡 등이 있다.

폭염 관련 위험 사항인 ▲그늘막·무더위 쉼터·음수대 등 폭염 저감 시설 파손 ▲작업장 안전관리 미흡 등 발견 시 신고하면 된다.

물놀이 안전 관련 위험 사항인 ▲인명구조함 등 안전시설 정비 ▲출입·관리 미흡 ▲안전요원 미배치 ▲물놀이 시설 파손 등도 신고 대상이다.

특히 올해 장마철 집중호우 시기는 지

난해와 비슷하거나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침수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옆이나 집 앞 등 주변 빗물받이탈개가 쓰레기나 흙 등으로 막혀있을 경우 사전에 신고하면 호우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이나 누리집(safetyreport.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앱에서는 퀵메뉴의 ‘집중신고’ 기능을 활용하고, 누리집에서는 ‘안전신고-여름철 집중신고’에서 신고하면 된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외국인 포

함) 주변의 재난·안전 위험 요소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부호 안전정책관은 “호우, 산사태 등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인적·물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민들이 주변에 위험한 요소가 발견되면 주저하지 말고 안전신문고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여름철 집중신고 기간(6~8월)동안 광주지역 안전신문고에는 1832건의 시민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호우·태풍 관련 신고가 1776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전광훈 기자

“빈집 한눈에 찾아보세요”… ‘빈집마켓’ 플랫폼 운영

빈집 활용 촉진, 빈집 수리바·반값 임대료 등 지원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동구 관내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 주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빈집마켓’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구청 홈페이지에 마련될 ‘빈집마켓’ 플랫폼은 빈집 소유주와 임차인 간의 연결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과격적인 재정 지원을 통한 빈집 문제 해결과 주거 부

담 완화 두 가지를 목표로 한다.

‘빈집마켓’ 플랫폼에서는 빈집 정보 검색, 임대 등록 신청, 지원 사업 안내 등의 정보를 편리하게 한눈에 볼 수 있다.

현재 동구에 방치된 빈집은 미관 저해는 물론, 우범 지역화 가능성 등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동구는 이러한 빈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철거 및 안

전조치 공사를 실시하고 빈집 조지명령 및 직권철거를 통해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철거 중심의 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이와 함께 빈집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빈집 철거에서 활용 중심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빈집마켓을 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빈집마켓을 통해 빈집 소유자가 주택을 정비하고 임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

기 위해 ‘빈집 수리바’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최대 3000만원이다. 이를 통해 환경이 개선된 빈집을 ‘빈집마켓’에 내놓고 임대차 계약이 체결될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임대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반값 임대료’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이 안정적으로 거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임택 동구청장은 “빈집마켓 운영 사업은 방치된 빈집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주민들의 주거 복지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철수 기자

